

## 박물관 밖의 박물관: 유물에서 유적으로

김홍남 (이화여대 박물관 관장, 문화재 전문위원, ICOM Korea 부위원장)

한국의 문화 유산은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분류되고, 나아가 유형문화재는 유물과 유적으로 양분된다. 본 발표문은 유형문화재 중 유물이 아닌 유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주 논지는 유적의 보존과 활용도 박물관학적인 접근이 유효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박물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에 비하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새천년을 맞이한 한국의 유물, 미술품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내에서 벌어진 잦은 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사라졌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귀중한 문화유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국공사립과 대학 박물관, 미술관의 수장고와 전시실에 차곡차곡 자리잡아 왔다. 그리고 박물관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의 유명박물관, 미술관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하바드대학의 세클러(Sackler), 피바디 에섹스, 스미소니안의 프리어, 로스엔젤레스시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영국의 V&A 미술관에도 이미 한국관이 들어섰고, 올 가을과 내년 안으로는 영국의 대영박물관,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멕시코 국립박물관, 불란서 국립기메미술관이 한국실을 개관하게 된다. 이들 박물관·미술관에서 이제 한국인의 예술적 업적이 미술·공예품의 전시를 통해 세계인에게 알려지게 된다. 또 가슴벅찬 일로서 ICOM 한국위원회와 한국박물관협회의 노력의 결실로 2004년이면 세계박물관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약 2천 5백여명의 세계박물관인들이 서울을 찾게 된다. 이제 유물, 미술품류의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인력 양성 제도도, 물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되어 가고 있고 잘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는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는 말을 누군가 한 적이 있다. 5000년 역사의 한반도에는 실로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 속에는 북한과 백두산 너머의 고구려의 유적들도 포함된다. 세계에 1000년,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가 몇 개나 될까? 경주도 서울도 일종의 박물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유적이 훼손되어 왔고 또 훼손의 위기를 안고 있는가? 경주 남산이 그렇고, 전통마을들, 사찰들, 사원·향교들, 전통 건축들이 그러하다. 최근의 풍납토성 사건은 한국문화유적관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말해준다. 문화유적의 문제는 유물과 달라 외국이라도 수출되어 박물관·미술관에 유물처럼 보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UNESCO의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들어가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 목록에 들어가는 수는 우리 문화유적의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문화재 보호에 몸 바쳐 온 사람들과 그 과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박물관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만의 노력으로 문화유적을 지키기에는 제도적으로 인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역부족이다. 문화유적의 보존은 이 민족에게 남아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 발표문에서는 몇 가지의 케이스들을 통해 그 실태를 점검하고 박물관학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